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엄마’의 형상화와 성 역할 문제

이상진

국문초록

현재 창작되고 있는 한국동화의 작가, 독자, 구매자, 평가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적 관점은 유효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의 작품창작과 평가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제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 글은 한국 창작동화에 나타난 엄마의 형상화를 분석함으로써, 어린 자식과의 관계 속에 비쳐지는 오늘날 ‘엄마’가 보여주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살펴보고, 어린이의 성 역할 교육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아울러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의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어머니의 신화’에 의해 자식 재생산의 희생물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식에 대한 의존과 대리 만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모성으로 변모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병적으로 확산된 교육열, 사교육의 증가, 과도한 경쟁심리 등에 의해 어머니 개인의 욕망은 아이의 성장기 동안 지연되거나 억압, 포기되고 만다. 그리하여 현대의 어머니에게서는 희생적이고 봉종적이며 이타적인 면모와 억압적이며 비합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면모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오정희의 『송이야, 문을 열면 아침이란다』의 엄마는 양육과 가사를 위해 문학의 꿈을 접은 인물이다. 하지만 서술자인 딸은 그런 엄마에게 연민을 가지면서도 아들과 차별하는 어머니를 계모라고 말함으로써 어머니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모성상과 결별하고 있다. 임정자의 일련의 환상동화와 남찬숙의 『괴상한 녀석』에 나오는 엄마는 때리고 잔소리하고 말이 안 통하며, 아이

들의 교우관계까지 간섭하고 아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의 지배자로서의 '엄마'이다. 이들 동화에서 엄마는 평면적인 인물로만 형상화됨으로써 왜곡되고 부정된 모성을 회복할 희망을 남기지 않아 더욱 문제적이다.

아이들은 주로 부모를 통해 성역할을 학습, 혹은 모방하며, 평등한 부부관계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역할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지닌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이 가사일 돕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김희숙의 「엄마는 파업중」이나, 자신의 일과 이름을 찾은 엄마의 이야기인 선안나의 「엄마의 이름」, 목은균의 「아빠는 요리사, 엄마는 카레이서」 같은 작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긍정적인 전망을 발견할 수 있다.

1. 한국 창작동화와 페미니즘비평

근대에 이르러 '아동'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아동문학은 일반성인 문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창조적이고 인격적인 교육의 틀로서 다양한 독서물 시장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문학 이론은 물론이고 전문동화작가에 의한 활발한 창작과 번역, 비평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 이러한 사정은 아동물 창작의 역사가 100년이 채 안 되는¹⁾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아동물의 출판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문학과 관련된 기관의 설립과 독서교육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동물에 대한 비평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는 전문적인 비평가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아동문학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이

1) 우리나라에서 아동문학의 기점을 대개 최남선의 『소년』이 창간된 1908년으로 잡고 있다. 『소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종합교육지이자 아동잡지의 효시로서 이 잡지의 발간으로 아동문예에 대한 관심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재철, 『아동문학개론』(서문당, 1998), pp.48~49 / 유창근, 『현대아동문학론』(동문사, 1993), pp.65~71.

를 둔 어머니들로서²⁾ 이들은 크고 작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책을 선택하며,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동화를 분석하는 평가가 많아졌고 그 와중에 공주병에 대한 경계심³⁾이 크게 다루어지기도 했다. 한때 공주처럼 아름답고 착하고 우아한 여성이 되려고 꿈꾸는 것은 어쩌면 여성만의 특권이다. 그런데 그 이면의 남성 의존적 의미를 찾아내어 경계하고 그런 책의 출판과 독서마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친 태도가 아닐 수 없다.⁴⁾ 아이들이 공주는 현재 없는 존재이며, 그것이 다른 모티프와 마찬가지로 삶의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 은유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만일 그런 동화를 사실과 착각하는 아이들이 문제라면 모든 환상동화의

- 2) 최근 북미의 한 통계에서 1993년 서점에서 팔리는 어린이 책의 40%를 엄마들이 사 갔음이 밝혀졌다.(페리 노들먼, 김서정 역,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시공주니어, 2001, p.183.)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정확한 통계수치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형서점 어린이 코너나 지역도서관의 모자 열람실을 채우고, 크고 작은 독서모임이나 각 교육 기관의 독서지도사 강좌에 몰려들며, 그리고 아동독서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어머니들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이런 사정은 더욱 심할 것으로 짐작된다.
- 3) 수백 년 동안 읽혀온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등 서양의 전래동화들이 남녀문제에 있어 문제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링 페처(『누가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깨웠는가』, 이진우 역, 철학과현실사, 1991)나 바바라 G. 위커(『흑설공주 이야기』, 박혜란 역, 뜨인돌, 1998)의 저자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이런 논의는 구체성을 얻었고, 이것은 분명히 대안동화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최운정은 이에 대해 시대적 차이가 있는 전래동화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교정할 수 있는 동화의 창작과 출판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운정, 『동화 속의 남녀 평등』,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문학과학지성사, 1997).
- 4) 페리 노들먼은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을 간섭하는 행위를,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용어를 빌려 '선택적 전통'이라고 부른다. '선택적 전통'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비전을 말하는데 이는 다른 그룹의 문화적 자치권을 빼앗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페리 노들먼, 위의 책, pp.80~83.) 결국 선택적 비전에 의해 아이들의 책을 선택해 주는 행위는 남성이 여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이에 대한 어른의 문화적 억압인 것이다.

존재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될 것이며, 이로써 이전의 모든 문학적 소재들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⁸⁾ 문학이란 상호텍스트적인 것이고, 독자는 그런 작용에 의해 스스로 자기정화를 해 낼 수 있다. 문학적 상상력이란 바로 그 힘이고 아이들은 그 힘을 충분히 배울 능력이 있다.

문제는 아이들의 주변 세계를 소재로 하고 있는 이른바 ‘생활동화’ 혹은 ‘사실동화’⁹⁾에 나오는 여성의 문제이다. 이런 동화 속에 나타난 남녀 인물을 화를 비교하여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관점을 찾아내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인 지적임에 틀림없다.⁹⁾ 아이들은 이런 동화에서 비

-
- 5) 다행히도 요즘 쏟아져 나오는 대안동화들(『종이붕지공주』, 『슬기로운 아리테 공주』, 『퐁지머리 줄리에트』, 『냄새괴물소동』, 영화 『슈렉』 등)은 소극적이고 나약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공주라는 존재에 대한 환상을 역시 환상을 통해 깨뜨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새로운 시각을 떠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페로디의 원텍스트로서 역시 공주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 6) 생활동화라는 말은 원래 일본 프로문학이 지향한 생활주의 동화에서 온 것으로 ‘아동을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 자신이 알기 쉽게 생활 장면에서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재철, 위의 책, pp.152~153) 이후, 이 용어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생활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그린 동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하였다. 이재복은 이 용어가 일본문학의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동의 실제생활을 소재로 환상적인 서사를 이루어낸 동화(환상동화)와 구별하기 위해 ‘사실동화’라는 용어를 쓸 것을 주장한다. (이재복, 『판타지동화세계』, 사계절, 2001, pp.96~108 참조) 필자는 일본에서 수입된 용어라는 사실 이외에도 모든 동화는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인간의 생활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활동화’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활동화라는 용어가 이미 한국 아동문학계에 하나의 장르개념으로 굳어져 있는 까닭에 ‘생활동화=사실동화’의 공식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
- 7) 예를 들어 정진경은 『동화에 나타난 고정관념과 차별의 문제』(『또 하나의 문화 - 여성해방의 문학』 제3호, 1993)에서 남자 주인공이 많다는 남성은 적극적 여성은 소극적으로 그려진다는 하는 단순한 문제들을 가지고 동화를 재단하여 비판하고 있으며, 심혜련 역시 『야이 되는 동화 독이 되는 동화』(이프, 2000)에서 아동독서교육을 통해 느낀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동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실태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나온 『성평등 대안동화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6, pp.8~11.)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인 내용 분석에 머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판적 거리를 느끼기보다 동일시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⁸⁾ 그렇다고 남아와 여아의 묘사방식이나, 심지어 여자색 남자색을 가르는 것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아동문학을 바라보는 일은 남녀문제를 단순하게 편갈라 보는 위험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의 확립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양성적인 인간 지향을 보이는 이런 비판은 오히려 이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화에 나타난 남아와 여아의 묘사문제나 고정적인 성적 역할에 관한 부분은 아동 독자 자신의 문제이므로 저항적 독서를 유도하여 문제의식과 다양한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창작동화에 종종 그려지는 어머니의 실체이다. 그것은 희생적이고 복종적이며 이타적인 모성의 이미지와, 비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간섭과 집착이 심한 부정적인 모성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사실상 전자가 보여주는 모성이미지는 일반 성인문학을 통해 이미 충분히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한편으로 그 보살핌의 윤리는 여성의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⁹⁾ 반면 후자의 어머니상은 현대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논의 대상이 된다.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동화 속에서 재확인될 경우 아이들은 이런 이미지를 더

8) 동화는 크게 두 타입의 텍스트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래동화와 같은 비사실적이거나 고정적인 텍스트로서 이들 텍스트는 정보가 적은 대신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으므로 창조적인 독법이 요구된다. 텍스트와 현실의 동일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적이거나 유니크한 텍스트로서 이런 텍스트는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텍스트와 실제 인생을 쉽게 동일시할 수 있다. 즉 전자가 정보를 발생시킨다면, 후자는 정보를 환기시킬 뿐인 것이다. 마리아 니콜라예바, 김서정 역, 『용의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1998), pp.87~90 참조.

9) 여성주의 입장에서 보살핌, 양육 등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전통적 모성성이 바로 여성의 다름의 근거, 더 나아가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가 된다. 이정옥, 『페미니즘과 모성 : 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심영희·정진성·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나남, 1999), pp.58~59.

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모성 이미지는 일반 성인문학에서는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동화는 특별히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창작되고 유통되고 있는 한국 창작동화에 나타난 어머니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반성인문학에서 놓치고 있는 오늘날 '엄마'¹⁰⁾의 문제를 지적해 볼 것이며, 텍스트의 특성에 의해 그것이 아동에게 미칠 문제의 심각성을 아울러¹¹⁾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의 페미니즘적 대안동화들을 통해 어머니 형상화의 새로운 시각을 비판적으로 지적해보고자 한다.

10) '엄마'라는 용어는 물론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불려지는 어머니의 다른 지칭이다. 따라서 아동문학 속의 어머니만을 지칭하기 위해 특별한 뜻으로 쓴 것이다. 여기에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아동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에릭슨의 '엄마'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에릭슨은 '엄마'를 '여러 특질들을 묶은 하나의 구성적 이미지'로서 이런 특질들은 한 여성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떤 어머니도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엄마'가 되기를 의식적으로 갈망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정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가 정리한 엄마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관습과 품행'의 문제에 있어 권위의 소유자이고, 자신의 '괴리'는 질책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존경'을 강조하며, 자녀들이 순수한 형태의 감각적이고 성적인 즐거움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대해 단호한 적의를 보이지만, 실상 자신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성적인 표현을 탐닉하며, 자녀에게는 극기를 가르치지만 스스로는 절제하지 못하고, 전통의 가치를 우월하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는 '낡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Erik H. Erikson, 윤진·김인경 역, 『아동기와 사회』(중앙성출판사, 1988), pp.338~340.

11) 아동문학은 '작가가 아동이나 동심을 가진 아동다운 성인에게 읽히기 위해 쓴 모든 저작'으로 정의되는데, (이재철, 위의 책, p.9.) 이것은 아동문학이 내포적으로 아동과 성인을 모두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즉, 아동문학은 양가적 텍스트로서, 어린이를 향한 코드 외에도 어린이 주변의 어른을 무의식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 니콜라예바, 위의 책, p.92.

2. '엄마'라는 텅 빈 존재

현대의 어머니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된 '어머니 신화'에 도전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구의 경우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정과 일의 세계가 점차 분리되면서, 자녀양육이라는 주제가 부모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린이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전업(full-time job)이자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직업으로 간주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어머니를 위한 각종지침서가 쏟아져 나오고 여성과 아동들을 가정으로 격리시키는 현상이 증가하였으며, '모성에 대한 전문화'가 강조되기 시작했다.¹²⁾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런 '모성의 전문화'는 아버지의 역할이 경제적 기능으로 축소되고, 핵가족화 경향과 여성직업의 전문화, 아이에 대한 어머니와의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는 심리학의 조류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공동육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버지는 육아과정에서 주로 놀이의 측면에 국한될 뿐, 아이들을 양육하고 학교 성적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이고 일상의 실무적인 노동은 주로 어머니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³⁾

그런데 사회의 변화와 모성신화로 부추겨진 완벽한 '어머니라는 전문가'가 되는 것은 사회에서 은폐하고 있는,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여성의 갈등과 모순을 포함함을 알아야 한다. 여성은 어머니 일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아이에 대한 애착과 분리라는 갈등을 겪어야 하며, 자신과 아이를 동일시하여 아이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으로써 결국 이타적인 어머니의 모습과는 모순되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자식이 성인이 되면 어머니로서의 가정일 수행을 떠나 자신의 공백을 스스로 메워야 할

12)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6(창작과비평사, 1995), p.178.

13)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이재원 역,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한 조각 내 인생과 아이문제』(새물결, 2000), pp.143~148.

처지에 이른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지금까지 페미니즘 시각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은 여성이 가정 내 존재로 역할이 고착되면서 겪는 자기욕망의 상실, 혹은 여성성과의 모순 등에 나타나는 성적 불평등의 문제였다. 즉, 여성의 자아신장을 위한 일이 가정 내 존재로 고착시키는 '모성신화'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의 문제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의 사회활동은 자아 찾기의 측면보다는 경제행위 측면에 의미를 두려는 성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여성이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전히 보조적인 것 내지는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경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위치가 변화되지 않는 현실은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자식재생산의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¹⁵⁾ 이러한 어머니의 신화에 의해 여성은 사회적 욕망을 포기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몰두하게 되는 일이 많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새롭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가정 내 존재로서 어머니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안게되는 문제들이다. 어머니는 자아의 실현을 가정 내에, 특히 자식 재생산에 고착시킴으로써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상과는 분명 대립되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에릭슨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정신병리적인 입장에서 '엄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리하며 냉정하거나 지배적이거나 거부적이고 혹은 과소유적이거나 과잉 보호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이런 '엄마'는 부패된 모든 것의 핑계거리이고 문학적 화풍이의 대상이며 비난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14) 변혜정, 「어머니되기의 환상과 실제 그리고 적응」,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현실문화연구, 1993), pp.134~136.

15) 어머니는 아이들의 교육까지 철저히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예로 현재 아동물 출판시장을 들 수 있다. 아동물 책에는 대개 '엄마와 함께 읽는(보는)', '엄마가 읽어 주는(들려주는, 가르쳐주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고, 육아나 교육 관련 서적에도 엄마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목들이 붙어있다.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⁶⁾

오늘날 부모들은 그저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돌보는 일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와 부모가 규정한 조건에 적응시키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며, 나아가 아이의 능력을 최대한 뒷받침해야 하는 의무 또한 가지게 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아이는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하여 부모는 가능한 한 아이의 모든 결함을 교정시키고, 가능한 모든 소질을 계발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부모, 특히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정보노동'을 행해야 비로소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이후 병적으로 확산된 교육열은 어머니를 철저한 교육의 보조자로 만들어 놓았고, 그것은 사교육의 증가와 과열된 경쟁심리를 부추겨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개인적 욕망은 아이의 성장기동안 지연되거나 억압 혹은 포기되고 만다. 그리하여 육아와 교육, 가정 일로 지치고 무력한 여성은 그야말로 '텅 빈' 엄마이고, 악마적인 여성과 천사적인 여성의 혼란 속에 길들여진 번덕스런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 창작 동화 가운데에 이런 '엄마'와의 갈등이 그 중심 소재로 등장하고 있음은 따라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3. 양육과 가사의 희생자로서의 엄마

한국 창작동화의 대부분에서 어머니는 가정 내 존재로서, 아이와 가장 가깝게 생활하면서도 집안의 가구처럼 거의 없는 존재이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적극적으로 그려진 경우라고 해도 아이에 대해 보조적이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존재로 그려진다.¹⁸⁾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때로 딸아이의 눈을 통해 부정적으로 비친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일반적인 갈등 양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전통적인 양육 태도 곧,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16) Erik H. Erikson, 위의 책, p.337.

17)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인, 위의 책, pp.149~160.

철저히 종속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아의 성장 모델로서 엄마의 모습은 바로 여아의 미래의 모습이고, 그것은 학령기 여아들의 성장과정에서 당연히 문제적으로 비치게 되기 때문이다.

오정희의 「송이야, 문을 열면 아침이란다」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송이라는 여자아이를 서술자로 하여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화이다. 이 작품은 장편인 만큼, 환경문제나,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빈부의 문제, 예술문제 등 폭넓은 주제를 소화하고 있다. 이런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 오정희 특유의 쓸쓸한 시선이 서술자에게 투영되어 있어 작가의 개성이 확연히 의식될 뿐 아니라, 묘사의 긴장감과 수사적 아름다움이 작품의 문학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교훈성을 의식한 생경한 서술들이 튀어나오고 있어 생동감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 작품의 엄마는 문학소녀의 꿈을 접고 결혼과 동시에 가정내의 존재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여고시절에 백일장에서 탄 장원 상장을 장롱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거나, 주부 백일장에 나가서 아이가 설사를 하는 바람에 글 한 줄 쓰지 못하고 똥 기저귀만 열 다섯 개 거둬 돌아와야 했다거나, 가계부를 쓰면서 깨알처럼 짧은 글귀를 메모해 놓는 엄마의 모습은 딸아이의 서술을 통해 다소 서글프게 전해진다. 하지만 송이의 가족은 그런 엄마의 꿈을 송두리째 몰수한 가정답게 거부적이다. 어느 봄날 아침 엄마는 활짝 핀 목련꽃을 냐 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그만 밥을 태우고 만다.

“똥에 콩나물국이라니 이건 어느 나라 식인가.”

- 18)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 그것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아버지의 부재 혹은 서민층의 삶), 어머니가 사회적 이상을 떨치지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그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재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가련한 존재로 서글픔의 정조만을 그려내어 그들의 가난에 덧붙여진 어머니의 부재는 역시 가정의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강조될 뿐이다. 이런 동화들은 결국 어머니에게 경제활동의 요구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자녀의 양육과 가사활동의 책임을 진 희생적인 존재여야 함을 당연하게 그리고 있어 문제가 된다.

아빠가 못마땅한 기색으로 빵을 한입 베어 물고 콩나물국만 훌훌 떠 잡수셨다. 아빠는 밀음식을 싫어하셨다. 가난한 집에서 밀가루 수제비만 먹으며 자랐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미안해요. 꽃에 정신이 팔려서 그만 밥 타는 줄도 몰랐지 뭐예요.”

엄마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듯했다.

식구들이 모두 부루퉁한 얼굴로 물어뜯듯 식빵을 베어먹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어찌니, 도시락을 못 싸줘서……”

엄마가 식탁에서 일어나는 오빠에게 울상을 지으셨다. 나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기 때문에 도시락 걱정이 없었다.

“괜찮아요. 학교 매점에서 컵라면 사먹으면 돼요.”

“라면 따위로 끼니를 때워 버릇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야.”

아빠가 못마땅하게 말씀하셨다.

아빠와 오빠가 서둘러 집을 나간 뒤 엄마는 식탁 앞에서 새까맣게 탄, 누룽지로도 먹을 수 없는 밥알들을 굶으셨다.

엄마의 눈물이 밥솥 속으로 툭 떨어졌다.¹⁹⁾

엄마의 봄 풍경 감상이 눈물로 이어지는 아침 식사 사건은 엄마가 가족들의 일상에 철저히 속박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엄마의 진정한 자아가 잠깐 일상 위로 올라서는 순간임을 아이는 알아채지 못한다. 그깟 일로 ‘못마땅한’ 기색을 하며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해대는 무례한 남편에게 절절매면서 가족의 눈치를 살피는 엄마는 서술자인 송이의 눈에 그저 가엾고 불쌍한 존재이다. 송이가 그런 엄마를 도와주는 일이 기껏해야 함께 남자가족원의 눈치를 살피며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작가는 이 가정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19) 오정희, 『송이야, 문을 열면 아침이란다』 첫째권 (한양출판, 1993), pp.80~82.

여아는 엄마와의 동일시를 통해 사회의 역할을 배우게 된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아동은 성기의 차이를 지각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과 가족 역동성 때문에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함으로써 성 역할을 발달시키고, 학습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되는 사람의 행동을 더 획득하는 경향이 있고, 강화가 보장되는 '성에 적절한' 행동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발달이론에 의하면 아동이 자신을 남자나 여자로 분류한 것과 일치하는 성 유형화된 행동양식을 학습한다고 한다.²⁰⁾ 결국 학습이론이든 발달이론이든 심리학이론이든 아이들은 주로 부모의 역할로부터 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엄마의 삶의 태도는 여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인공 송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자신들의 엄마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는 장면은 바로 이런 사정을 말해준다. 돈 씹씹이를 가지고 '결혼해서 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잔소리를 하고, 방 정리 안 하는 것을 '계집애 타령' 해가며 나무라며, 번번이 아들과 비교를 하며 차별을 해대는 엄마는 여자아이들에게 지겹고 따분한 존재일 뿐 아니라 공포스럽기까지 한 미래의 모습이다.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엄마는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해. 오빠와 나를 얼마나 차별하시는지 몰라. 삼겹살 구울 때마다 오빠더러는 고기 먹으라고 성화를 하시고 내겐 상추만 먹으라고 그러서. 살찌면 안 된다냐?”

근영이의 말을 듣고 나는 손뼉을 딱 쳤다. 어쩌면 우리 집과 그렇게 똑같은가. 어제 저녁에는 나 몰래 오빠에게만 아이스크림을 주다가 내게 들켜셨다. “밤에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으면 살찌잖니. 봐라 엄마도 안 먹잖아. 오빠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괜찮지만 너랑 나랑은 항상 조심해야 돼.”

20) A.G. 카플란 · M.A. 세드니, 김태련 · 이선자 · 조혜자 공역, 『성의 심리학』(이대출판부, 1995), p.251.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으시며 당황하고 찢찢매는 엄마가 오히려 딱했다. (중략) 게다가 오빠는 한수 더 떠서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똥똥하거나 몸매가 짝 빠지지 않은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시집도 못 갈 거라고 약을 올렸다.²¹⁾

이 모임에서 송이는 겉보기에는 화목한 그 가족 풍경 뒤로 엄연히 자리잡고 있는 '여자'에 대한 편견을 확인한다. 그리고 비밀놀이를 하면서 송이는 자신의 엄마가 친 엄마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인다. 물론 엄마가 오빠와 자신을 차별하는 데 대한 보복심리와 장난기가 작동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당황스러운 거짓말은 이상하게도 작품의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은비와 영희의 문제나, 검은 별 아저씨 등 초반에 갈등과 관심의 요소로 주어졌던 것들이 해결되고, 졸업이라는 종결과 새로운 시작으로 작품은 마감되지만, 이 사실만큼은 밝히지 않고 작품이 끝나고 마는 것이다. 투고한 원고가 신문에 실린 엄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그 거짓말 때문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송이가 거짓말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이 작품의 심각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성장기 여아가 엄마의 복종적이고 이타적이며 무력한 삶의 태도, 또한 본인도 희생자이면서 가부장제적 편견을 그대로 답습시키려는 불합리한 태도에 대해 저항하려는 의도의 분명한 표지이다.

사실 자기 희생적 모성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 특질을 위협하며 피해야 한다는 가설은 또 다른 성 차별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런 특성을 열등성과 힘없음의 표시로 보는 시각에는 반여성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공격성이나 독립심 같은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²²⁾ 이 작품의 엄마가 보이는 가정내의 희생적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얻고 있다. 즉 송이의 엄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21) 오정희, 위의 책, pp. 201~202.

22) 페리 노들먼, 위의 책, p.236.

봉사활동을 하고 배움을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손수 만든 웨타를 선물하며, 일상의 사소한 발견이 지니는 의미를 글로 풀어내는 안목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사람은 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딸과 엄마의 최종적인 화해를 생략한 것은 무력하고 희생적이며 이타적으로 형상화된 엄마에 대한 거리화, 곧 진정한 성장모델로서의 어머니의 부재를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부재하는 것들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의 빛깔과 질감을 전환시키는 경이',²³⁾ 곧 이 연금술적 전환이 작가가 드러내는 성장의 원리임을 확인하게 된다.

4. 아이의 지배자로서의 엄마

한국창작동화의 어머니상(像)은 최근 들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그간 동화창작의 주류를 이루던 서민성과 교훈주의, 혹은 감상주의에서 탈피하면서, 환상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요즘 아이들의 관심과 문제들을 반영한 작품이 많아진 것이다.²⁴⁾ 특히,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늘면서 '엄마'는 지난 시대의 가치를 반복하고 지키는 여성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겉보기에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모성상과 대립되는 이런 '엄마'는 가정내의 존재로서 가사로 피곤하여 신경질적이며 잔소리를 쉬지 않고 해대는 여성이며, 그런 피곤을 이웃과의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수다로 해소하며, 자식의 교육에 정도 이상의 간섭을 하여 아이의 학원 시간표를 짜고 감시하며, 교우관계와 학교 생활까지 지배하려 드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임정자의 환상적인 동화작품에 나오는 엄마는 아이를 때리거나, 야단치고, 아이와 말이 안 통하는 엄마이다. 작가는 이런 아이의 현실과 환상을 결

23) 김훈, 「자라나기의 말 못 할 비밀」, 오정희, 위의 책 둘째권, p.227.

24)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 2001), pp.13~26 참조.

합하여 서사적 해결을 보여주지만, 작품 속에서 모든 것이 삭제된 채 평면적으로만 그려지는 '엄마'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다. 「낙지가 보낸 선물」의 '엄마'는 때리기를 잘하는 엄마이다. 냄비 속에 매달려 있는 산낙지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회초리로 때리고, 학원에 가지 않고 장난을 친다고 때리는 엄마는 아이에게 강요와 억압과 폭력만으로 그려지고 있다. 낙지가 뜨거울 것 같아서 살려주고 싶고 새소리가 아름다워서 새를 찾아다니는 아이의 아름다운 마음은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아이는 낙지로부터 빨판 신발을 선물로 받아 엄마가 때리려고 할 때마다 천장으로 벽으로 도망감으로써 엄마의 회초리를 피하고 엄마는 그 때문에 점점 때리는 일이 줄어든다.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가」의 엄마는 시끄럽게 뛰어다닌다고 야단친다. 갈 곳이 없는 아이는 층계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도깨비들을 만나 실컷 뛰어 놀다가 엄마의 부름을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아이가 뛰어 놀고 싶은 욕망을 억제시키자, 아이는 도깨비들과 함께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엄마는 도깨비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아이와 엄마의 세계는 환상 혹은 유희공간 대 현실로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아이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엄마는 그런 아이의 세계를 전혀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존재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이와 엄마의 의사소통 부재는 「공공별에서 온 어머니」의 가장 중심적인 갈등이다. 이 동화는 공공별에서 온 엄마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잃어버려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아이는 결국 엄마가 타고 온 우주선을 타고²⁵⁾ 공공별에서 엄마의 기억상자를 되찾아 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의 미덕은 아이와 엄마의 소통 불가의 상황을 '어린 시절의 기억 상실'이라는 은유로 풀어냄으로써 어른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점

25) 환상동화의 시공간은 대개 일차적인(현실적) 시공간에서 이차적인(환상적) 시공간으로 옮겨가며, 이 때는 어떤 통로를 거치게 된다. (마리아 니콜라예바, 위의 책, p. 216.) 이 작품에서 그런 통로는 우주선이 있는 지하실로서 이 곳에서 우주선을 발견하면서 아이는 환상적인 시공간을 여행하게 된다.

에 있다. 또한 미술을 미술로 알아듣거나 내장을 대장으로 알아듣고, 축구하고 싶다는 말을 죽고 싶다고 알아듣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소통불가의 상황이 유머러스한 말장난으로 전환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것 역시 작가의 참신한 면이다. 하지만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와의 실제 대화가 여느 엄마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술은 정말 싫은데.

나는 말했죠.

“그럼, 글쓰기 그만둘래요.”

어머니는 물론 안 된다고 했지요.

나는 어머니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 같아

큰 소리로 정확하게 내 뜻을 밝혔어요.

논술도 억지로 하는데 미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럼 언제 노느냐고.

어머니는 대답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중에 좋은 학교 가려면 억지로라도 배워야 해.

계다가 논술, 미술 선생님 모두 실력 좋기로 소문 났잖니?

공부 다 하고 놀겠다니 정말 대견하구나.”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을까요?

내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요?²⁶⁾

이 작품의 엄마는 외계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철저히 한국의 현실에 적응된 ‘엄마’로서 좋은 학교에 가려면 논술도 미술도 잘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놀이보다 공부가 더 좋은 아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아이가 놀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공부하고 놀겠다

26) 임정자,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가』(창작과비평사, 2001), p. 32.

는 말로 알아듣는 엄마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작품에서 엄마는 아이의 말을 못 알아듣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말을 일부러 잘못 듣는 척하는 엄마이다. 어린이 내포독자가 이것을 알아차릴지는 알 수 없지만,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기억의 상실에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둠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해결로 향하게 한다. 즉, 어머니 역시 기억을 잃은 불완전한 존재며, 아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그렇다.

남찬숙의 『괴상한 녀석』은 초등학교 5학년인 나(찬이)와 옆 호에 이사온 괴상한 아이 '석이'와의 우정을 기본 내용으로 집단따돌림 문제와 학교 내의 권력화 문제, 초등학교 고학년의 남녀문제를 둘러싼 성장기의 심리변화를 그리는 장편동화이다. 이 작품의 '엄마'는 주인공 찬이가 석이의 진면목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방해자로 형상화된다. 엄마는 '주로 의사나 박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서 나의 꿈조차 미리 결정해 버리는데, 자신의 사회적 성취를 아이를 통해 대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덩어리이다. 따라서 엄마는 어떤 일보다 무엇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아이의 교우관계마저 간섭하려 든다. 그러나 그조차 외적인 조건에 얽매인 것으로, 이웃에 이사온 아이를 부모의 직업이나 태도나 이삿짐 따위로 판단하려 드는 실수를 범한다. 문제는 찬이의 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석이의 엄마 역시 자식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에 대한 사실을 감추려든다.

“그럼, 아! 저기 사립 학교에 보내셨군요. 우리 찬이도 거길 보내려고 했는데, 그만 추천에서 떨어졌지 뭐예요.”

엄마는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학교에 원서를 넣은 적도 없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럼 어디 다른 곳에 있는 학교에?”

“그런 게 아니예요. 지금은 휴학을 하고 있어요.”

“휴학이요? 왜요?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중략)

“우리 아이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학교를 2년이나 일찍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아니, 왜요?”

“머리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보통 아이들과 함께 공부시키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차라리 혼자 공부시키라고 하도 권해서요.”

“세상에! 어쩐!”

엄마의 감탄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²⁷⁾

찬이 엄마와 석이 엄마의 이 대화는 관찰자인 나의 서술을 통해 다소 풍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은 욕망이 사실인 것처럼 탈바꿈되고, 일찍부터 교육을 시켜보려다가 학습지진아로 만든 현실이 똑똑한 아이의 현실부적응으로 바뀌는 엄마들의 거짓말잔치는 그대로 아이에 대한 과대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런 엄마의 욕망은 아이들과 놀 시간을 주지 않고, 학원으로만 돌게 하며, 공부 잘하는 아이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교우관계까지 간섭하고 비싼 과외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아빠와 다투는 식으로 나타난다.²⁸⁾

함정은 여기에 있다. 석이가 학습지진아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엄마는 대번에 석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이미 석이가 엉뚱하기는 하나 착한 아이

27) 남찬숙, 『괴상한 녀석』(창작과비평사, 2000), pp.21~23.

28)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나이, 신념, 직업, 결혼관계, 개인적인 사회망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Tom Luster · Lynn Okagaki, 박성연 · 도현심 · 전승원 공역, 『부모-자녀관계』, 학지사, 1996, pp.377~381.) 양육태도마저 개성이 존중되지 않고 경쟁심리가 과열된 한국 가정에서 가장 지배적이면서 가장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는 개인적인 사회망이다. 즉, 개인적인 관계망을 통해 얻은 잘못된 양육 정보나 혹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에 의해 갈등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인 여건이나 이웃 사람들의 질 등 광역상황에서 나오는 정보에 엄마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는 것을 안 주인공은 어머니를 비롯한 외부 사람들의 석이에 대한 평판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여기에 학교내 집단 따돌림문제까지 가세되면서 나는 석이를 외면하고 만다. 엄마가 가진 문제는 다시 경태라는 아이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불거진다. 힘과 체격과 학습능력 모두에서 최고로 알려진 경태에 대한 엄마의 편견은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해서 또한 번 나를 어렵게 한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여성이 의도적으로 갈망한 어머니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²⁹⁾ 그러나 여성이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복종적인 어머니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자식의 재생산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욕망과 노화로 상실 되어가는 여성성의 회복 욕망, 그리고 끝도 없는 가사노동의 무력감에 의해 이런 역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머니 속에 어떤 여성적 정체성도 어머니의 신화도 이제는 발견하기 힘들다.

결국 서술자의 엄마는 거짓말 잘하고 변덕과 편견이 심하며 공부 잘 하는 데에만 가치를 두며 지나친 간섭을 하고 심지어 아이보다도 훨씬 덜 성숙하고 사회화도 덜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작품은 이런 어머니와 아이의 진정한 화해나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에 모함에 시달리는 '나'를 믿어 주고 석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는 것은 엄마가 아닌 아버지이다. 즉, 아이와 시간을 훨씬 더 적게 보내는 아버지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석이'와의 화해를 돕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불평등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성'과 긍정적인 '부성'을

29) 이런 편견 투성이의 부정적인 모성은 빈부의 대립을 심각하게 다루는 이른바 서민성 질은 동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조성자의 『하늘 끝 마을』(대원사, 1993)에서 하늘 끝 마을과 아파트촌의 대립은 주인공을 통해 화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로 표상되는 부유층의 어머니가 외양만으로 묘사된다거나 아이에 대해서도 외양만으로 판단하는, 왜곡되고 부정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도 역시 문제가 된다. 이 작품에서 빈곤층의 어머니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부유층의 어머니는 사치스럽고 부조리한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빈부의 대립이라는 잘못된 틀로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문제적이다.

대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5. 엄마의 ‘이름’으로

앞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엄마의 일면적인 모습만 부각시킴으로써 아이와 엄마와의 건널 수 없는 갭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인모델이 자아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다면 이런 동화의 양산이 결국 아이들에게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살펴볼 동화는 엄마의 상황이 지니는 문제를 아이가 깨닫고 이해하려는 노력에 초점이 있는 작품으로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긍정적인 전망을 발견할 수 있다.

김희숙의 「엄마는 파업중」(『엄마는 파업중』, 푸른책들, 2001)은 엄마가 가사를 파업한 사건을 통해 엄마의 존재를 깨닫고 화해에 이르는 한바탕 해프닝을 서사화한 것이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집안 일이 벅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 가족이 외면하는 일을 엄마는 일시에 중지하고 아이들이 노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린다. 가족이 모두 협상안을 만들어 발표한 후에야 유유히 나무에서 내려오는 엄마의 모습은 다소간 장난스러운 데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가 긍정적이다.³⁰⁾ 같은 작가의 「고

30) 이 작품은 영국의 페미니즘 그림책인 『돼지책』(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 허은미 옮김, 웅진닷컴, 2001)의 서사와 매우 유사하다. 가사에 대한 가족의 무관심에 엄마는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짧은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다. 그림은 어느 새 돼지로 가득 차고 가족들 역시 모두 돼지로 그려진다. 집안은 물론 며칠 새 돼지우리처럼 변한다. 가족들은 며칠만에 돌아온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후로는 모두 함께 가사일을 분담하게 되어 엄마가 웃음을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그림책에서 엄마는 얼굴표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거나 무표정하게 그려지며, 가족은 모두 명령만 해대는 입 벌린 얼굴로만 그려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돼지로 변하는 섬뜩한 설정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된다.

은별 이고은별은 엄마의 이타적인 희생에 감사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성 앞에 엄마의 성을 갖다 붙이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로서 양성 쓰기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머니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안나의 「엄마의 이름」은 단편 동화로서 엄마가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겠다고 하자 잔소리를 적게 듣겠다는 생각에 찬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점차 집안 일에 소홀해지고 그림 밑에 엄마의 이름을 써넣는 데 기쁨을 느끼는 엄마를 딱딱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가족을 그리고 있다. 비로소 제 일을 찾은 엄마는 파업이 아니라 자연히 가사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엄마는 그 대신에 환한 미소를 찾는다.

엄마 얼굴은 몰라보게 환해지고 잔소리는 사라졌다. 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하는 엄마를 보아왔던 아빠와 민우에게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엄마 모습이 신선하기까지 했다.

아빠와 민우가 바라던 대로, 두 사람에 대한 엄마의 지나친 관심과 배려는 서서히 줄어들었다.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조바심하며 기다리는 대신 엄마는 스케치를 했고, 민우의 공부 시간을 재는 대신 데생을 했다.³¹⁾

이기적인 가족들은 다시 엄마가 제자리에 와 줄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엄마는 다시 찾은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저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엄마의 이름 세 글자를 찾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가족들은 짐작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일로 해서 지나친 관심과 배려, 곧 '잔소리'가 줄었다는 것에 즐거워하는 가족의 모습은 다소 **쓱쓱**한 기분을 안겨준다.

목은균의 「엄마는 카레이서 아빠는 요리사」는 제목에서 짐작되듯 엄마와

31) 선안나, 「엄마의 이름」, 『길 잃은 페르시아 왕』(동아출판사, 1994), p.148

아빠의 역할 바꾸기라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되어 있다. 카레이서인 엄마가 좋아서 결혼한 아빠는 엄마의 일을 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집안 일을 도맡아 한다. 9년이나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엄마 아빠의 관계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이 이상한 일로만 비친다.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 청소하기, 전등 달기, 운동하기

엄마가 하시는 일: 밥하기,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난 선생님이 잘못 쓰신 것 같아 손을 들고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틀렸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날 보았어요.

“설거지와 밥은 아빠가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이 ‘와하하’ 웃었어요.³²⁾

사실 문제는 ‘나(슬아)’가 아니라 학교의 바른생활 교과서이고,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아이들의 태도이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채 인지하지 못한 채 아이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교사이자이다. 나는 이 문제를 두고 다수와 싸움을 벌이고, 결국 자신의 어머니가 카레이서이며 아빠가 요리사이고, 이런 이유로 집안 일을 아빠가 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한다. 서술자의 이런 건강하고 순수한 태도는 이 작품의 독특한 설정을 이끄는 동력이다. 무엇보다 연습으로 바뀐 ‘엄마’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기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의 태도는 성 역할의 문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아이 양육과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주인공은 엄

32) 목은균, 『아빠는 요리사 엄마는 카레이서』(국민서관, 2001), p.10.

마의 일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꿈꾸고, 그런 희망에 의해 다시 엄마의 일을 인정한다. 가정의 잡다한 일로부터 벗어난 엄마는 아이와의 일상적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긍정적이다. 엄마는 질레꽃 향기에 어린 시절의 친구를 기억해내고 눈물짓고, 아이들의 놀이에 아이보다 더욱 정신을 빼앗길 만큼 동심을 잃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말이 안 통하는 일 따위는 벌어지지 않는다.

여성이 성 역할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아동기에 부모의 평등한 부부관계를 관찰했느냐와 관련된다고 한다.³³⁾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부모가 무엇을 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일상적 삶 자체가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의 불평등한 관계, 혹은 그것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상황만을 보게 된다면 아이의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모성은 더욱 문제적일 수 있다. 처음부터 고정된 성 역할에 이의를 달고 나온 대안 동화로서 이 작품은 제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의 설정으로 아이에게 자유롭고 건강한 선택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제 이름을 찾은 엄마 못지 않게, 여아의 가슴에 긍정할 수 있는 자신의 미래로서 '엄마'의 이름을 찾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 맺음말

한국창작동화시장은 '어머니'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에도, 추천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도, 또 한 그 책을 읽히고 지도하는 데에도, 학교의 도서관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어머니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화창작 작가

33) A.G.카플란·M.A.세드니, 위의 책, p.259.

중에도 여성이 많아졌고,³⁴⁾ 그 중에도 '엄마' 작가가 늘고 있다. 페리 노들면에 의하면 이런 사정 외에도 동화를 읽는 아이들 중 여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동화는 어찌하면 여성문학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³⁵⁾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창작동화는 아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명백성에 의의를 달고 있지 않다. 아이들에게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안정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런 사회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성인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조차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전래동화나 혹은 이전의 동화들이 보여주는 가치는 지금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혹은 저항적으로 독서하는 한편 대안적인 동화를 통해 교정을 할 수 있다고 하나, 현재 창작되고 있는 동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지나갈 수 없다.

이 논문에서 다룬 최근의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엄마'의 상은 바로 그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엄마'의 상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오정희의 「송이야, 문을 열면 아침이란다」에서 가장 어머니에게서 가까운 딸이 어머니를 계모라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은 전통적인 모성상에 대한 결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부르조아 가정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엄마'는 아이의 양육과 가사일, 그리고 자식에 대한 최대한의 뒷받침에 시달리는 신경질적이고 비사회적인 엄마이며, 아이의 지배자로서의 '엄마'³⁶⁾이다. 이런 엄마와의 갈등을 임정자의 일련의 환상동화와 남찬숙의 「괴상한 녀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 작품에서 엄마는 때리고 잔소리하고 말이 안 통하며, 아

34) 최근에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 김향이, 노경실, 선안나, 소중애, 원유순, 이금이, 조성자, 채인선, 황선미 등은 모두 여성작가이다.

35) 페리 노들면, 위의책, p.240.

36) 중세의 마녀가 그러했듯 그 이미지 속에 드러나는 부정적인 모습이 가부장제에 대해 도전하고 위협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희영,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그림(Grimm)동화 -양극적 여성이미지와 가부장적 시민사회」, 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원고, 2001.6.16

이들의 교우관계까지 간섭하고 아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지나친 간섭과 경쟁, 과도한 교육열은 가사일과 육아로 일상에 찌들린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아이를 통해 대신 성취해보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며, 현대의 '어머니신화'가 만들어낸 후유증이다.

아이들은 주로 부모를 통해 성 역할을 학습, 혹은 모방하며, 평등한 부부 관계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 역할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지닌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희생적인 모성만을 강조하는 이전의 동화를 넘어서 가족에게 집안 일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엄마는 파업중」이나, 가정 내의 일을 떠나 자신의 일과 이름을 찾은 엄마의 이야기인 「엄마의 이름」, 「고은별 이고은별」, 나아가 개인의 개성에 따라 가정내의 성 역할이 뒤바뀐 건강한 가정 이야기인 「아빠는 요리사, 엄마는 카레이서」 같은 창작동화의 양산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필자 : 홍익대 강사

Abstract

The Problems of Gender-role and the Characterization
of 'Mom' in Korean Stories for Children

Lee Sang-jin

Today, people who enjoy children's stories are mostly women. Women are main part of the writers, readers, buyers, and critics of the children's stories. It does not mean, however, that feministic approach has the largest territory in them. In reality, patriarchy still has the dominant influence over the stories, especially when they create or evaluate them.

Socially, mother has been supposed to take care of all the things happening to the family and to be a lifelong sponsor to her children. This has made so-called 'myth of mother'. The myth grows continuously to force 'mom' into a mission, which drives her to reproduce their social status, sacrificing herself for the family, especially for the children. To sacrifice her life means to suppress her desire. Her desire has a place in those of the children, depending on them. This means that, individually, she has to retard and give up her own desire. In this process, 'mom' is developing the double image. The image has two different aspects. One is the mother who is self-sacrificing, obedient, and altruistic. The other is the negative 'mom' caused by social pressures resulting from aggressive competitions in raising children. The 'mom' has lost her own self, because her desire has been replaced by that of the child, and finds herself empty. The 'negative mom' is suppressive, irrational, and even violent. This article is mainly intended to focus on how the 'mom image' is forme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m' and children, and how the image affects the behavior and the 'gender-role of the children. These also include partly the conflicts between feminism and patriarchy mentioned above.

The 'mom', a would-be writer, in *'My Daughter, Open the Door, and You can Embrace the Sun.'* by Oh Jeonghee, devotes her life to her family, giving up her dream. But the daughter, the narrator, does not accept, by telling her friend that the 'mom' is a stepmother, the 'mom' who values the 'son'. To the last, she stands against the traditional model role represented by her 'mom', even though she has a sympathy with her. Another example is the ruler image appearing in some fanciful children stories by Im Jeongja, and *'A Queer Fish'* by Nahm Chansook. This 'mom' makes the child a puppet, controlling even forming a friendship. This controller mother in these works, is described as two-dimensional character, leaving no room for restoring them to themselves from the negative image.

The image that parents show has a great effect on their children. Specially, in the role of gender, the early influence is more powerful. The children who are brought up by equally shared parents are more likely to be democratic and flexible when they grow up. In this point of view, more active, sometimes demanding, character offers more positive prospects. This 'mom' asks for more shared life. For example, she strongly asks family members to join the housework as in *'Mom is on Strike'* by Kim Heesook, and she gains her own name and job as in *'Mom's own name'* by Seon Ahn-Na, and in *'Racer Mom, Cook Pop'* by Mouk Eun-gyun. Through these characters we can really start to open the door, allowing healing light to come into the opposite side of the door.

